

구례 시골 '마을' 연극 국립극단 안 부럽네

11~14일 구례문화예회관 '여인숙 사람들' 공연

연극배우 이상직(50)씨는 국립극단의 대표 배우였다. 1983년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한 그는 청주 사범대 독문학과를 거쳐 청주 극단 '상당극회'에서 활동했다. 연기에 갈증을 느낀 그는 "3년간 서울에서 굴러보자" 마음 먹고 중앙 무대를 택했다. 1994년 국립극단 연수단원으로 들어간 후 2014년 '바나 아저씨'까지 솔한 무대에 섰다.

그의 배우 이력은 화려하다. 라신스의 '브리타니쿠스'에서 네로 역할을 맡아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는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을 받았다. 국립극단의 대표 레퍼토리인 '문제적 인간 연산', 한태숙 연출가의 '오이디푸스'에서도 주역을 맡았다.

청주 출신인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구례에 정착한 건 지난 2010년이었다. 오래전부터 귀촌을 꿈꿨던 그는 지역 순회 공연을 다니다 만난 전라도가 맘에 들어 동지를 들었고, 이 곳에서 아내도 만났다.

이 씨는 구례에 정착 후 극단 '마을'을 창단했다. 토박이 원주민을 비롯해 귀농·귀촌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극단이다. 11일 벌써 여섯번째 공연 '여인숙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다.

"서울 연극은 산업화, 상품화 되면서 자본에 굴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농사 지으며 연극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은 원래 마을의 제의(祭儀)에서 시작됐죠. 전문가 극단이 아닌 생활 예술, 생활 연극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시골의 경우 모든 행사가 대중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삶이 풍요로워지는 과정이고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좋아하는 이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극단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2012년 극단을 만들고 처음 무대에 올린



국립극단 대표 배우였던 이상직(사진 앞줄 오른쪽)씨가 창단한 군민극단 '마을' 단원들이 11~14일 무대에 올릴 '여인숙 사람들' 연습중 유쾌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극단 마을 제공>

국립극단 출신 이상직씨 주민·귀농인들과 극단 창단 2012년 첫 공연 매진 ... "공짜표 없어도 관객 많아요"

작품이 '인생 콘서트 39도 5분'이었다. 첫 공연은 전석 매진 돼 입석까지 팔았다. 이어 다리오 포의 '슈퍼마켓 습격 시간', 마이 너티티 삶에 따뜻한 시선을 담은 정인식 작 '겨울 해바라기'를 공연했다. 올 봄에는 손튼 외와리의 원작을 구례 이야기로 각색한 '구례! 우리 읍내'를 무대에 올렸다.

극단 '마을'은 첫 공연부터 공짜표가 없었다. 시골에서 하는 공연이니 그냥 가서 볼 수 있겠지 하면 오산이다. 성인 1만원, 학생 5000원짜리 티켓을 판매하며 초대권도 없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티켓을 파는 거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영화 관람하는 정도의 비용은 치르고 공연을 관람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표를 팔아요. 첫 작품은 입

석까지 나갔죠. 구례 군민들도 관람하러 오지만 진주, 순천, 부산 등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골짜기 시골에서 어떤 작품을 올리는 지 궁금한 거죠."

현재 '마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는 17명이다. 농사 짓는 이도 있고 건축업하는 이,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하다. 이번 공연이 데뷔 무대인 이도 있다.

11일~14일(오후 7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여인숙 사람들'은 어느 방향 도시에 자리한 '터미널 여인숙'을 배경으로 다양한 삶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이번 공연의 희곡과 연출을 맡은 안지선(44)씨는 서울 대학로에서 활동한 연극인으로 역시 구례로 귀촌해 살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인 설수호

(38), 박승우(44)씨 역시 구례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다. 이들은 '여인숙 사람들'에도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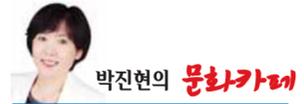
이번 작품에는 구례에서 건축업을 하는 고상철씨를 비롯해 이상직 씨가 4년전부터 가르치고 있는 순천 대안학교 '사랑 어린 배움터'에서 연극을 배워온 학부모 조영호·황선아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씨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뛰어난 안톤 체홉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다.

"체홉은 작은 지역의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러시아를 이야기하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곳 구례도 똑같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세상은 더 잘 보입니다. 선거, 정치, 사랑, 돈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씨는 자신을 따라 구례에 새 동지를 틈 안치 등 동료 연극인들과 '농사와 연극이 어우러지는 삶'을 꿈꾸며 '숲속의 인형극장'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010-4877-37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2012년 4월, 서울 시립미술관을 찾은 날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다. 마침 이날은 (사)한국 시립미술관협회 국내의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뮤지엄 데이'행사가 열려서인지 곳곳에도 관람객들로 붐볐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 상당수가 행사장인 1층 전시실을 가로질러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지난 1998년 천경자 화백이 서울시에 기증한 93점의 컬렉션을 보기 위해서였다.

고흥 출신인 천 화백이 고향인 고흥이나 전남여교 교사로 인연을 맺었던 광주에는 변변한 추모행사는 고사하고 그녀의 예술혼을 느낄 수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수 십 여개의 점시에 '거칠게' 놓여진 형태색의 물감과 끝이 갈리고 짙어 있는 붓에선 그녀의 거침없는 성격과 열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최근 서울 시립미술관의 천경자 전시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예술세계를 접하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고향인 고흥이나 전남여교 교사로 인연을 맺었던 광주에는 변변한 추모행사는 고사하고 그녀의 예술혼을 느낄 수

'거장'에 대한 예의

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녀의 '믿음' 대로 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지난 2002년 작가의 이름을 딴 70평 규모의 '천경자 갤러리'를 꾸미고 전담 학예연구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VIP예우'를 하고 있다.

'천경자의 혼'이라는 명패를 단 이곳에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 작), '이탈리아 기행'(1973) 등 1940년대~90년대 후반의 대표작과 드로잉, 회화 등이 전영호·황선아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씨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뛰어난 안톤 체홉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다. "체홉은 작은 지역의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 러시아를 이야기하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곳 구례도 똑같습니다. 작은 단위에서 세상은 더 잘 보입니다. 선거, 정치, 사랑, 돈 등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씨는 자신을 따라 구례에 새 동지를 틈 안치 등 동료 연극인들과 '농사와 연극이 어우러지는 삶'을 꿈꾸며 '숲속의 인형극장'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010-4877-3780.

그녀의 수많은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간이 엇갈려 같은 데 벌써 3년 전 일이 됐다. 그중에서도 전시실 한켠에 꾸며진 '화가의 방'은 지금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생전 사용했던 붓과 물감 등 수많은 회구들은 말 그대로 작가의 내밀한 창작공간을 엿보는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 아쉬움을 준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건 90년 대 이후 미미한 작품활동과 개인사 등을 이유로 문화관광부가 천 화백의 금관문화훈장 추서를 바라는 미술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추구한 한국의 독보적인 여류화가이지만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와 멕시코의 프라다 칼로로 전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아이콘이다. 천재적인 예술성은 물론 '스캔들'로도 유명세를 치렀지만 이들 나라는 두 사람을 위한 미술관 건립과 다양한 추모사업 등을 펼쳐 '불후의 전설'로 만들어냈다.

비록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거장에 대한 그들의 예의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그녀를 떠나 보내는 마음이 가을날씨처럼 스산하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신안 흑산도 고대문화 조명' 국제학술대회

고대 문화교류 거점이었던 신안 흑산도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문화예술회관 전남문화재단 연구자들이 흑산도 문화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등에 대해 공동 주제발표를 한다.

12월 전남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흑산도 문화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사다.

학술대회 주제는 고대 서남해 해상항로에서 흑산도가 지녔던 위상이다.

이기동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연구자들이 흑산도 문화유적의 고고학적 성과 등에 대해 공동 주제발표를 한다.

종합토론 주제는 장보고시대 흑산도의 위상, 고대 흑산군도와 중국 주산군도의 관계, 흑산도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 등이다. 문의 061-287-680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시대 좌충우돌 코미디 창극 '배비장전' 공연

아트 컴퍼니, 12일 유·스토리

유·스퀘어문화관 1층 광장에서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극단 아트 컴퍼니(대표 원광연)가 12일 오후 3시 유·스토리(유·스퀘어 1층 실내

광장)에서 조선시대 좌충우돌 코미디 창극 '배비장전'을 선보인다.

풍자문학의 걸작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배비장전'은 죽은 아내를 위해 지조를 지키려던 배비장이 제주 가정 애랑에게 빠져 망신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비장전의 시공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그대로이지만, 특유의 사설조와 고어체들은 요즘 시대에 맞게 각색했다. 여기에 배우들의 슬랩스틱 연기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유쾌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2015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트컴퍼니'와 유·스퀘어 문화관이 함께 기획했다. 문의 062-360-84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흙자락 강진에서 옹기를 빚는 정윤석씨 정명관(가) 부자

A 2알 40kg 40L, B 1알 20kg 20L, C 1.5알 15kg 15L, D 3알 60kg 60L, E 2알 40kg 40L, F 1알 20kg 20L, G 0.5알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179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파충류 맛집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